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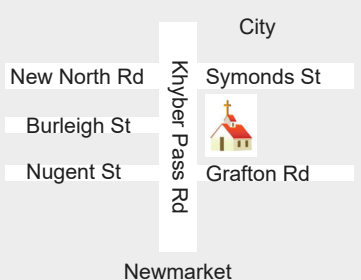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을 준비합시다.
2. 예배 후 2019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4시15분 사무실).
3.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 잔치가 12월 25일(화)에 있습니다. 1부: 성탄 감사 예배 오후 5시, 2부: 식사 교제 오후 6시, 3부: 성탄 축하 잔치(사회 및 진행: 2남선교회). 성탄 감사 예배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4. 오는 30일은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31일(화) 밤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5. 바누아투 선교를 위한 선교 학교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계속 됩니다.
6. 교회는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2019년에도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든 지 자원하기 바랍니다(신청서 참조).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동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7. 교회 요람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소나 연락처, 기타 변경된 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한 주간 저녁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경된 마음에 계속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소망합니다.
9. 2019년도 달력이 준비 되었습니다. 가정당 벽걸이, 탁상용 각 1부씩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된다면...
그러나 점점 복잡해진다.

PAUSE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멈춰라.
-The 멈춤, 김여호수아

2018년 12월 16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이사야 55:1-2
◎ 찬 송	큰 영화로신 주 35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5:31-41
찬양대 찬양	주 나의 노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이태한목사
찬 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2월 교회 사역

12월 16일(주일) 정책당회
 12월 23일(주일): 성탄주일
 12월 25일(화): 성탄 감사예배
 (축하잔치)
 12월 30일(주일): 송년주일
 12월 31일(월): 송구영신예배

12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이옥화 집사
 다음 주일: 손조훈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권평화 자매
 12월 26일 수요일: 가정예배
 12월 26일 애찬: 가정예배
 12월 30일 주일: 정관영 장로
 12월 30일 청년부: 박대회 형제

12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박일영/이진아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재림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반성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정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인도, 네팔에서 사역하는 전기봉 선교사 소식입니다.

이 목사님, 모든 성도들 평안하십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로 석가가 혼례를 하고 아들 라울라를 낳고 아내가 옆에 있으니 깨닫는데 방해가 되니 결국 고행을 자초하며 수행의 길을 떠나면서 읊은 말입니다.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욕망의 한계를 벗어나서 혼자서 바람같이 물같이 산천을 돌고 돌며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고 해서 “싯달타”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이는 태어나면서 모두 깨달았다는 뜻인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지난날 대학에서 재적을 당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마을 절간에서 몸을 추스르며 불경을 다치는데로 읽었습니다. 중이 되어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불교에 귀의 하지 않고 가장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불교의 본거지 네팔에서 주님 핏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건축하는 “Church Plants”가 되었으니...

네팔, 인도에 처음 들어와서 석가의 출생지를 답사하고 보리수 나무아래 앉아 2천 5백년 전 싯달타가 태어나서 누인 자리를 쳐다보며 석가의 제자보다 예수의 제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백 번 천 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가문에도 광명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곱씹어 보았습니다.

16년을 외발로 서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구도자의 삶은 추위와 더위와 기갈과 배고픔으로 엄습해 올 때 모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비결을 터득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장육부 전신은 성한 데가 없지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창공을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매서운 폭풍이 몰려오면 모든 생물들은 안전지역으로 피신을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절벽 위로 뛰뛰뛰 걸어나가 폭풍우를 뚫고 비행을 시작해서 긴 날개로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쉬지않고 한달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바트로스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 받아서 전진할 때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목사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역시 간수치가 높고 지방간 2등급에 조만간 당 수치도 올라 간다니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 도 정옥자권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2:18-22
 설 교 새 술은 새 부대에/
이태한목사
 찬 송 112장
 주 기 도 다같이

기도: 김준섭 형제